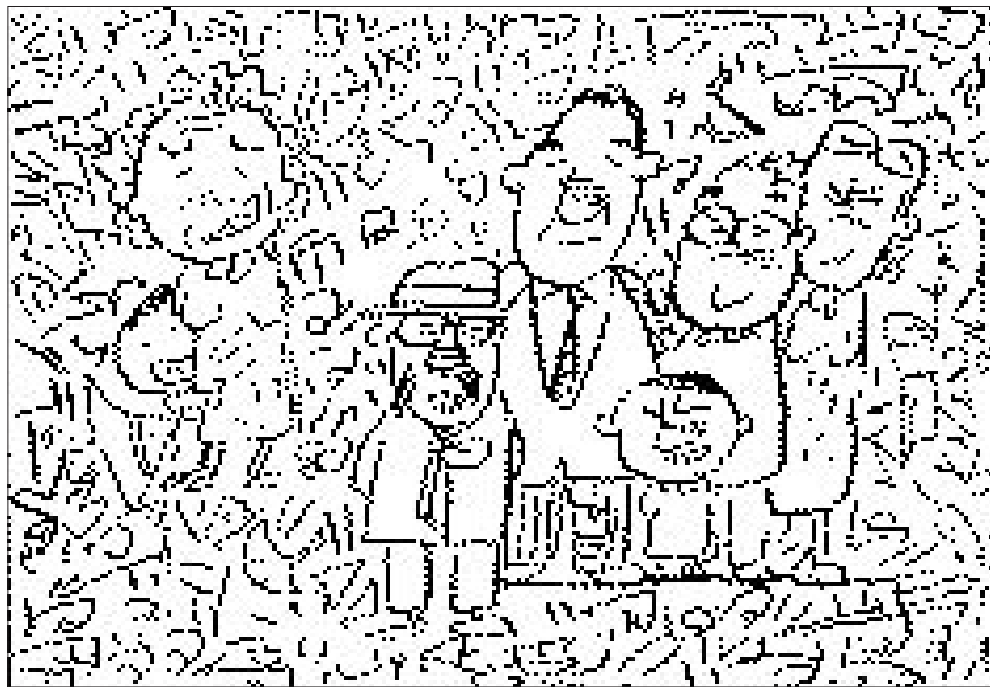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11>



찾아보세요 못, 펜촉, 음표, 열대어, 서툴룩, 사람 옆 얼굴, 은행잎, 바늘, 왕관

내기 시합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싸웠다하면 언제나 할머니의 승리로 끝났다.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죽기 전에 할머니에게 한번 이겨보는 게 소원이었다. 그래서 생각 끝에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내기시합을 걸었다. 시합 내용은 '오줌 멀리 싸기'였다. 그런데 결과는 또 할아버지가 지고 만 것이다. 오줌 멀리 싸기라면 남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유는 시합 전 할머니가 내건 단 한가지 조건 때문이었다.

"염감, 손 대기 없시유~."



지난주 정답

치솔, 솜, 담배 파이프, 바늘, 고추, 열대어, 다리미, A자, 펜촉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박한승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임형구 <화순군 이양면>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꿈의 섬유' 나일론 탄생

'거미줄보다 가늘지만 철선보다 강한 실'

1937년 2월16일 미국 듀폰사는 값이 싼 석탄, 공기, 물을 이용해 만든 인조섬유로 특허를 획득한다. 인류 최초의 합성섬유이자 '꿈의 섬유'로 불리는 나일론이 탄생한 것이다.

세상을 바꾼 20세기의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꼽히는 나일론은 특유의 유연성, 탄성, 저항성 등을 바탕으로 스타킹에서부터 특수 첨단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듀폰사는 1939년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나일론을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 뒤 1940년 스타킹 발매를 시작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나일론은 태평양 전쟁의 특수도 누리게 된다.

일본은 1938년 이전까지 실크를 통해 세계 섬유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과 함께 수입이 어려워진 실크의 자리를 나일론이 대신하게 된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실크를 대체할 유사 제품을 개발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일론은 점차 고급 의류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싼 가격과 뛰어난 실용성으로 섬유시장에 혁명을 가져 온 나일론은 듀폰연구소의 월리스 캐로더스 박사에 의해 탄생했다. 1932년 연구원 폴리언 힐이 우연히 비커에 폴리에스테르를 담아 유리 막대로 거미줄처럼 가늘고 긴 실을 뽑아내는 것에 착안해 나일론을 개발하게 됐다.



그러나 세상을 뒤바꾼 과학자 캐로더스는 나일론의 화려한 성공 역사와 달리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신제품 개발 성공의 여세를 몰아 듀폰사는 캐로더스에게 나일론의 상업성을 높일도록 압력을 넣게 된다. 처음 개발했던 나일론은 질지가 못해 상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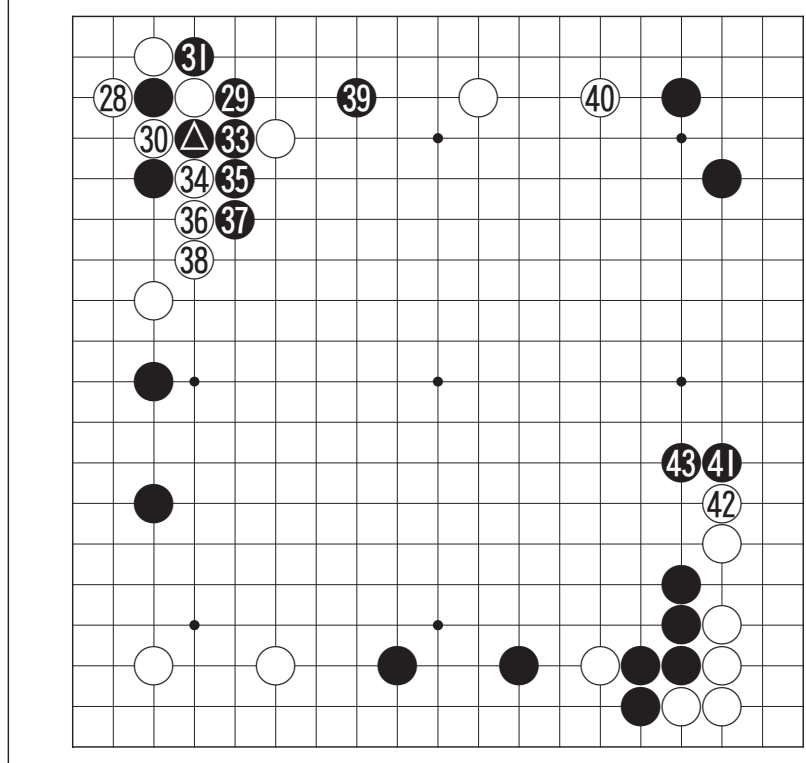
순수 과학자로서 연구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결국 실용성을 강조했던 연구관리 책임자와의 갈등으로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 캐로더스는 나일론의 공적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던 1937년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당시 그의 나이 41세였다.

많은 이들은 노벨상 후보를 잃게 됐으며 그의 죽음을 추모했다. 그리고 뛰어난 과학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허무'(nihil)라는 단어가 듀폰사의 (dupont) '온'(on)을 따 그가 발명한 물질에 나일론(nylon)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3일(음 1월 7일 癸未)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광주 기우회 대항전 혼전을 노린 수 3보(28~43)
白 김희관 5단 (무석회) 黑 임상빈 6단 (광우회)
지는 것이 싫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흑 31로 돌려치고 백도 34로 끊는 것이 필연적인 수순으로 흑 39까지는 예전에 상당히 유행했던 중반 정석이다. 도중 흑 37은 보류할 자리. 이 수는 단순히 '참고도2'의 흑 1로 뒤야 했다. 그러면 나중에 '가'로 두점머리에 붙어가는 급소를 노릴 수 있다. 백이 2로 밀어주면 3으로 받아서 '나'의 침입수가 완화되어 좋다. 백 40과 흑 41은 남아있던 마지막 큰 곳으로 흑 31 때부터 예상되던 진행이다. 다음 한 수가 중반전 돌입의 신호탄이 될 예정인데 과연 어디일까.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조혜연, 주자왕전 2회전 진출
조혜연 9단이 현역 여성 프로기사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루이나이웨이 9단을 누르고 제6회 전자랜드배 주자왕전 예선 2회전에 올랐다. 조혜연은 12일 서울시 한국기원사 열린 이 대회 1차 예선에서 루이나이웨이를 꺾었다. 이로써 조혜연은 이날 이다해 3단계 승리를 거둔 박지은 9단과 13일 예선 2차전 치른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조혜연-박지은의 예선 맞대결이 사실상 결승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 제한시간은 각 10분 40초, 초읽기 1회이며 우승 상품은 1천만원이다. 각 리그 대표들이 맞붙는 왕중왕전 우승 상품은 5천만원이다. /오광복기자 kroh@

굿모닝 잉글리쉬 <1095> It was kind of ~ 약간 ~ 했습니다
A: How did you like the movie?
B: It was kind of long.
A: How long was it?
B: Over two hours.
A: 그 영화 어땠어요?
B: 약간은 길었어요.
A: 얼마나 길었는데요?
B: 두 시간이 넘었어요.
* 약간은 떨렸습니니다. = It was kind of exciting.
* 약간 아둔했었어요. = It was kind of stupid.
* 약간은 빨랐어요. = It was kind of fast.

오하오우 니혼고 <1095> なんか豫定(よてい)がありますか。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A: 金さん、今度の土曜日(どうび)になんか豫定(よてい)がありますか。
B: いや、何の豫定(よてい)もありませんが。
A:じゃ、久(ひさ)しぶりに釣(つり)にでも行こうと思っっていますが、ご一緒にいかがですか。
B: 私は一度(いちど)も釣(つり)をやったことがないですが、面白(おもしろ)いですか。
A: ええ、金さんもしっかり好(す)きになるだろうと思(おも)います。
A: 김씨, 이번 토요일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B: 아뇨,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요.
A: 그럼, 오랜만에 낚시라도 가려고 합니다만 함께 가지요?
B: 저는 한 번도 낚시를 한 적이 없는데, 재미있습니까?
A: 예, 김씨도 분명히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面白(おもしろ)い: 재미있다
•好(す)きになる: 좋아하게 되다, 좋아하다

니하오 풍구워 <72> 你忙嗎? 바쁘세요?
A: 你忙嗎? Ní máng ma?
B: 我不忙。 Wǒ bù máng.
A: 我們一起去看電影吧。 Wǒmen yìqǐ qù kàn diànyǐng ba.
B: 好的。 Hǎo de.
A: 忙嗎?
B: 不忙, 不忙.
A: 我們一起去電影吧.
B: 好的.

한자 이야기 <682> 幀畫(탱화) 불화 탱, 그림 화
탱화(幀畫)는 티베트의 불화 '탱가'를 음역한 것으로, 불교의 신앙내용을 천이나 종이에 그려 족자나 액자로 만들어 불상 뒤에 거는 걸개그림이다. 따라서 탱화는 벽에다 그리는 다른 불화(佛畵)보다 만드는 방법도 쉽고, 더욱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후기의 많은 불교 행사에 널리 사용되었다.
탱화의 '탱(幀)'은 본래 독음이 '정'이고, '그림족자'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수(繡)를 놓는 데 사용되는 '틀'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적으로 이 한자가 불화 중 걸개그림을 나타낼 때는 '탱'이라고 발음하고 있다.
탱화 중 주불(主佛)의 뒤에 거는 것을 후불탱화(後佛幀畵), 화엄경(華嚴經)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화엄탱화(華嚴幀畵), 제석신앙(帝釋信仰)을 담고 있으면 제석탱화(帝釋幀畵), 상단(上壇)에 걸면 상단탱화(上壇幀畵),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보내는 영가천도(靈駕薦度)때 봉안하는 것을 감로탱화(甘露幀畵)라고 한다. 이렇듯 한국의 사찰에는 어디를 가든지 신앙대상으로 탱화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 등지의 사찰에는 이런 탱화를 걸지 않고 있다. 석굴암의 벽면에 있는 석조탱(石彫幀)을 한국 탱화의 기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더마플라스트 탱드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